

댄스스포츠참가자의 파트너폭력경험과 운동중단유혹에 대한 인과모형분석

김명자*, 천은영**

충남대학교 체육학과*, 단국대학교 생활체육학과**

Analysis of Causal Model on Experience of Partner Violence and Temptation of Quit Exercise of Dance Sports Participant

Myung-Ja Kim*, Eun Young Chen**

Dept. of Physical Education, Chungnam university*

Dept. of Life Sports, Dankook university**

요약 이 연구의 목적은 댄스스포츠참가자의 운동중단유혹을 설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선행연구를 토대로 파트너폭력경험과 수치심, 성취욕구 및 운동중단유혹 간의 인과 구조적 모형을 설정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개인적 특성에 따라 운동중단유혹은 차이가 있다. 둘째, 댄스스포츠참가자의 운동중단유혹을 설명하기 위해 제안된 초기의 구조모형은 운동중단유혹의 측정변인인 결과의 측정 요인으로 인해 적합하지 않았다. 초기의 제안된 구조모형에서 적합하지 않은 측정 요인들을 제거하고 초기모형을 수정한 모형은 적합하였다. 셋째, 댄스스포츠참가자의 운동중단유혹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은 수치심, 파트너폭력경험, 성취욕구 순으로 나타났다. 이상을 종합해볼 때 파트너폭력경험과 수치심, 성취욕구는 운동중단유혹에 직접적으로 인과관계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주제어 : 댄스스포츠참가자, 파트너폭력경험, 수치심, 성취욕구, 운동중단유혹

Abstract The present paper attempts to account for temptation of quit exercise of dance sports participant.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relationship among the Partner Violence experiences of dance sports participant, their temptation of quit exercise, their embarrassment and desire of accomplishment.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re are differences in temptation of quit exercise according to personal characteristics. Second, after the analysis of the original structural model proposed in order to explain temptation of quit exercise of dan sports participants, it was found out that the modified model eliminating inappropriate factors, such as results which is a measurement variable of temptation of quit exercise. Third, in the following order, these factors had more relative influences on temptation of quit exercise of dance sports participants. Based on the above explanation, it was found out that partner violence experiences, embarrassment, and desire of accomplishment had direct causality with the temptation of quit exercis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revent and react appropriately to the possible violence of partner in order to lower the temptation of quit exercise of dance sports participants. Also, it is required for coaches and administrators to make active and consistent efforts to improve positive desire of accomplishment.

Key Words : dance sports participant, partner violence experiences, embarrassment, desire of accomplishment, temptation of quit exercise

Received 23 November 2013, Revised 23 December 2013
Accepted 20 January 2014
Corresponding Author: Myung-Ja Kim(Chung Nam University)
Email: dance3235@hanmail.net

ISSN: 1738-1916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1. 서론

최근 국민의 생활체육 참가실태를 조사한 문화체육관광부에 의하면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인구, 즉 1주일에 2회 이상 운동에 직접 참가하는 비율은 35.0%정도인 것으로 밝혀졌다[39]. 이러한 참가 비율은 경제 불황으로 인해 2010년(41.5%)에 비해 다소 감소되었으나 1986년 19.4%보다 약 1.8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서 10명 중 3.5명이 주 2회 이상 운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극히 상식적인 논리에 의존하지 않더라도 여가활동과 건강 활동으로서 생활체육은 이제 '선택' 아닌 '필수'가 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그러나 표면적으로 볼 때 운동참가자가 급속히 증가되었다고는 하지만 운동에 참여하는 인구의 대다수가 아직도 규칙적인 운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다. 다시 말해 3명 중 1명 이상의 국민이 자발적이고 규칙적으로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시점에서 지속적인 운동참여가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시작한지 수개월내에 포기하는 현상이 발견되고[21, 43], 6개월을 한계로 대략 50% 이상이 운동을 중단하고 있다[42]는 사실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대부분의 사회에 상존하고 있는 광범위한 현상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생활체육 저변 인구 확대를 위해서는 새로운 참가자를 창출하는 것 못지않게 운동중단을 유발하는 문제의 본질을 정확하고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그에 상응하는 정책적 방안을 병행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선적이라 판단된다.

운동중단이란 한동안 운동을 하다가 운동을 멈추는 행동을 의미하며[23], 유혹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떤 행동 또는 습관을 하려는 욕구의 강도라 정의 할 수 있다[5]. 이와 같은 관점에서 이 연구에서는 운동중단유혹을 '개인의 운동중단과 관련한 유혹상황과 그 유혹의 강도로서, 운동행동과정 중 주기적이고 습관적으로 운동을 중단하고자하는 정신/신체적 상태'로 규정하고자 한다. 운동중단유혹에 관한 체육계의 관심은 의학 분야의 연구 경향과 유사한 결과를 보인다. 즉 건강행동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는 변수인 유혹을 중심으로 인간이라면 누구나 이전의 행동패턴으로 되돌아가려는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운동행동단계마다 운동을 중단하고자 하는 유혹이 발생한다는 것이다[8, 12, 23]. 다시 말해 한 개인이

운동을 실천하고 이를 6개월 이상 유지하고 있을지라도 각 운동행동단계마다 끊임없이 운동을 중단하려는 유혹이 잠재되어 있는데, 이때 운동지속의 의지보다 운동을 중단하려는 유혹, 즉 운동중단유혹이 더 커지면 이전의 행동단계로 돌아가 결국 운동을 중단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유혹의 개념을 운동현장에 적용한 연구들에서도 운동중단유혹은 운동실천 및 유지단계에 가장 큰 관련이 있으며[8, 15, 23], 자신감과 여가만족에 부적인 관계가 있다[12, 44]고 밝혀 운동중단유혹이 운동행동을 이해하고 예측하는데 핵심이 되는 개념임을 밝히고 있다. 운동중단유혹에 대한 이와 같은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규칙적이고 지속적인 체육활동참여를 통한 체육활동의 내실화로 귀결된다. 동일한 목적에서 댄스스포츠참가자의 운동중단유혹도 학문적·실천적 측면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기 충분하다고 사료된다. 그러나 댄스스포츠와 관련되어 수행된 연구들은 많은 부분 운동참가를 지속·고양하는 참가자의 개인의 사회적, 심리적 요인들에 할애되었을 뿐, 상대적으로 댄스스포츠 참가를 중단·저하시키는 요인들에 대한 관심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댄스스포츠의 운동중단유혹에 미칠 개연성이 있는 파트너폭력경험을 가설적으로 설정하여 운동중단유혹에 관련하여 어떠한 영향과 관계가 있는지 연구하고자 한다.

파트너폭력은 상호 관계있는 파트너들이 의도적 혹은 잠재적으로 상대방에게 폭력을 행하거나 위협하려는 행동으로서, 신체폭력뿐만 아니라 비신체적인 형태의 언어적·정신적 폭력 등과 같은 심리폭력, 그리고 성희롱·성추행 등과 같은 성폭력으로 구분할 수 있다[37]. 그동안 폭력의 역기능 내지 부작용이 부각되면서 체육학분야에서는 운동선수과 생활체육참가자를 대상으로 폭력 혹은 학대를 관찰한 연구들이 수행되었다[13, 33, 48, 49, 55]. 그 결과 초등학교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크고 작은 폭력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러한 폭력은 운동에 대한 회피·중단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공통적으로 발견되었다. 또한 댄스스포츠 현장에서의 파트너폭력에 관련된 연구[37]에서도 댄스스포츠 현장에 심리적 고통을 야기할 수 있는 폭력이 심각하게 상존해 있으며, 이러한 파트너폭력경험은 개인의 신체 손상은 물론 정신장애와 성격변화, 그리고 운동지속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의 결과를 볼 때 댄스

스포츠참가자의 파트너폭력경험은 운동중단유혹에 관계할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댄스스포츠참가자의 파트너폭력경험과 운동중단유혹에 관계할 개연성이 있는 매개변인으로 수치심과 성취욕구를 상정할 수 있다. 수치심(embarrassment)은 자기에 대한 정서적 표상의 한 부분으로 총체적인 자기를 검토한 결과 부족하고 결핍되어 있으며 부적절하고 무력하고 작다고 느껴지는 자아의식으로부터 생겨나는 고통스런 감정의 한 형태로서[11], 단순히 자신의 결핍이나 잘못이 어떤 상황에서 공개적으로 노출됨으로써 느끼는 부끄러움이 아니라 자기 존재에 대한 공허감과 부적절감을 포함하는 감정이다[18]. 이러한 수치심은 폭력 및 학대 경험에 의해 발생되며[38], 대인행동 즉 공격적 반응, 비난,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 결핍과 같은 부정적인 대인 행동과 상관이 있음을 보고했다[58]. 또한 수치심 경향이 높은 사람은 우울해하고 부정적 평가를 두려워하며 사회적 불안이 높을 뿐만 아니라[40], 자신에 대한 부정적 평가 및 타인에 대한 분노가 생성되어 타인에게 공격적으로 반응하거나, 수치심을 경험하지 않기 위한 회피반응이 유발될 뿐만 아니라 대인간 접촉을 제한하거나 철수하게 된다[19]. 또한 성취욕구(desire of accomplishment)는 어떤 목적을 위한 행위를 좀 더 적극적으로 도전, 의욕적으로 실천하려는 욕구 내지 의욕과 그것을 추진하게 하는 하나의 자극으로서[27], 특정한 성취대상 및 상황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달시키거나 획득하고 이를 증명해 보이고자 하는 욕구를 의미한다. 그동안 성취욕구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사회 심리학적 변인의 효과를 탐색해온 연구에서 폭력 및 학대를 경험한 학생은 학업에 대한 성취도가 낮으며[10, 59], 성취동기는 수치심 경향성과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다고 보고하였다[45]. 또한 체육학분야에서는 성취목표에 있어 과제성향은 운동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을 유지시키고 운동지속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임을 제시하고 있으며[25], 성공가능성의 회박, 자신감 및 흥미 상실, 그리고 자신에 대한 확신이나 기대수준이 낮을수록 운동을 포기한다고 제시하였다[3, 14, 50]. 이와 같은 결과를 볼 때 댄스스포츠참가자의 파트너폭력경험은 수치심과 성취욕구에 영향을 미치며, 나아가 운동중단유혹에 관계할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예견된다. 즉 수치심과 성취욕구는 파트너폭력경험과 운동중단유혹에 매개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내생변인으로 판단된다.

종합적으로 댄스스포츠참가자의 운동중단유혹을 좀 더 심도있게 파악하기 위해 파트너폭력경험과 수치심, 성취욕구 및 운동중단유혹이 어떠한 관계가 있는 지를 살피는 작업은 학문적인 호기심을 유발하기 충분하다. 이러한 노력은 관찰된 바 없는 변인들 간의 관계를 실증함으로써 댄스스포츠계는 물론 주변 학문 분야의 미흡한 선행연구를 보완하고 보편적인 지식체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댄스스포츠계는 물론 생활체육현장의 지도자와 행정가에게 파트너폭력경험 및 운동중단과 관련된 심층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그 파생될 수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이 연구는 댄스스포츠참가자를 대상으로 개인적 특성과 운동중단유혹의 차이, 파트너폭력경험과 수치심, 성취욕구 및 운동중단유혹의 관계를 측정모형과 이론모형을 통해 모형간의 인과관계를 파악하여 변인들 간의 관계에 대한 실재를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연구 문제 1. 댄스스포츠참가자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 운동중단유혹은 차이가 있는가?
- 연구 문제 2. 댄스스포츠참가자의 운동중단유혹을 설명하기 위해 제안된 인과모형은 적합한가?
- 연구 문제 3. 댄스스포츠참가자의 운동중단유혹에 영향을 미치는 각 요인의 상대적인 영향력은 어느 정도인가?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및 표집

이 연구는 사설 및 공공 스포츠센터 중 댄스스포츠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성인 남녀 회원을 조사대상의 모집단으로 선정하였다. 조사대상 표집은 2012년 2월~ 3월까지 약 2개월 간 임의표집(accidental sampling)방법을 이용하여 서울·경기·충청권에 위치한 댄스스포츠 프로그램 운영하는 사설 및 공공 스포츠센터 60개 장소에서 10명씩 총 600명을 표본으로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 중 동일한 답변이 5개 문항 이상 반복되는 표본과 불성실

한 자료로 인해 신뢰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되는 표본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이에 따라 자료 분석에 최종적으로 분석된 자료는 523명으로서 연구대상의 특성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Characteristics		frequency	Ratio(%)
Gender	Male	186	35.6
	Female	337	64.4
Age	20s	130	24.9
	30s	81	15.5
	40s	129	24.7
	50s	129	24.7
	60s or older	54	10.3
Education level	under middle school	35	6.7
	High school	183	35.0
	Vocational College	83	15.9
	University	176	33.7
	Graduate school or older	46	8.8
Monthly Income (10,000won)	under 99	57	10.9
	100-199	199	38.0
	200-299	102	19.5
	300-399	84	16.1
	400-499	39	7.5
over 500	42	8.0	
Participation Type	Hobby	357	68.3
	Licensed	66	12.6
	Player	100	19.1

2.2 조사도구

이 연구에서는 댄스스포츠참가자의 파트너폭력경험과 수치심, 성취욕구 및 운동중단유혹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기 위하여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첫째, 개인적 특성에 대한 측정문항은 총 5문항으로서, 성에 대해 묻는 문항을 자신의 성에 응답하도록 폐쇄형으로 구성하였으며, 연령과 가정의 월수입에 대하여 묻는 문항은 개방형으로 구성하였다. 가정의 교육수준은 명명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참가유형은 개방형으로 구성하였다.

둘째, 파트너폭력경험에 대한 측정문항은 총 12문항으로서, Straus 등[35]이 고안하고, 손정영[29], 김승용[51]이 사용한 CTS2(conflict tactics scales) 척도, 그리고 공미혜[36], 신효식, 이경주[17] 등이 검증·사용한 척도를 댄스스포츠참가자의 파트너폭력경험에 알맞게 측정하도록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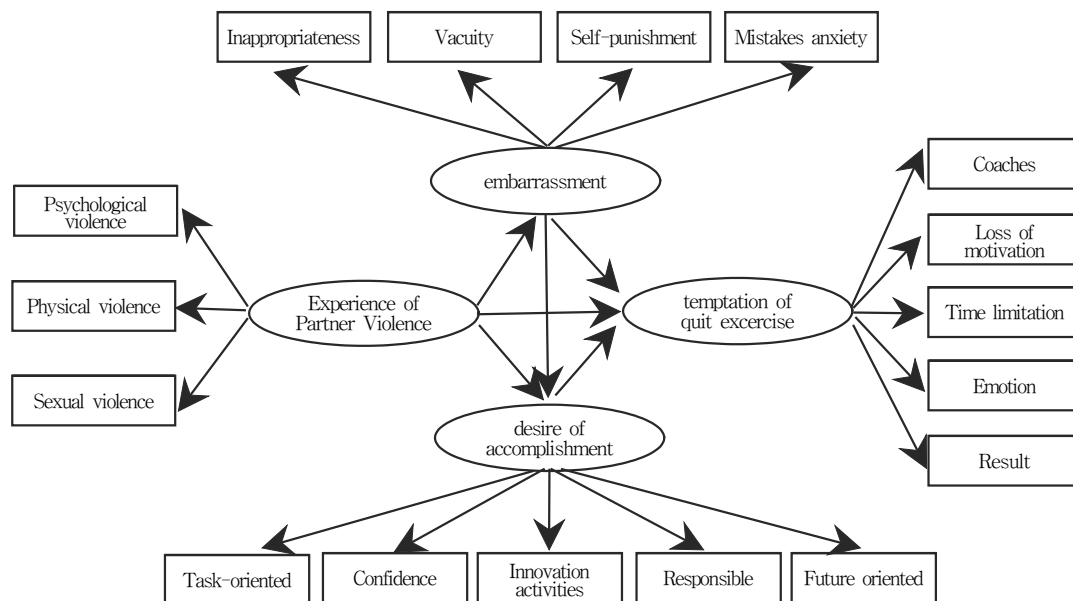
성하며 항목별로 '전혀 없었다'(0점)~ '자주 있었다'(4점)의 5단계로 점수가 높을수록 파트너폭력경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하도록 구성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3개 요인의 누적 분산율은 77.123%이며, 하위요인별 신뢰도는 .860~.920으로 나타났다.

셋째, 수치심에 대한 측정문항은 총 24문항으로서, Cook[7]이 고안하고, 이인숙, 최해림[18]이 검증·사용한 수치심에 관한 설문문항을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구성하였으며 각 문항은 5점 척도로서 항목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5단계로 점수가 높을수록 수치심이 높음을 의미하도록 구성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4개 요인의 누적 분산율은 66.477%이며, 각 하위요인별 신뢰도는 .650~.929으로 나타났다.

넷째, 성취욕구에 대한 측정문항은 총 20문항으로서,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설 교육 행정연수원이 개발한 '성취동기육성 과정(AMDP)'에 제시된 성취인의 행동특성과 박용현[56]이 제시한 '성취동기 높은 사람의 행동특성'을 기초로 김길준[32]이 제작·사용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5점 척도로서 항목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5단계로 점수가 높을수록 성취욕구 수준이 높음을 의미하도록 구성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5개 요인의 누적 분산율은 72.608%이며, 각 하위요인별 신뢰도 계수는 .825~.883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운동중단유혹에 대한 측정문항은 총 17문항으로서, 통합이론에 근거하여 홍준희, 이현영[23]이 한국의 운동현장에 적용하기 위해 개발한 한국형 운동중단유혹 척도를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5점 척도로서 항목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5단계로 점수가 높을수록 운동중단유혹이 높음을 의미하도록 구성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5개 요인의 누적 분산율은 81.738%이며, 각 하위요인별 신뢰도 계수는 .852~.912로 나타났다.

한편, 이 연구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댄스스포츠참가자의 파트너폭력경험과 운동중단유혹에 대한 가설적 인과모형은 [Fig 1]과 같으며 본 조사에 앞서 설문문항의 신뢰도와 구성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사전 조사 150명의 탐색적 요인분석 후 연구대상자 523명의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적 인과모형을 구성하는 각 변인의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Table 2>



[Fig. 1] Hypothetical model of the study

<Table 2> Result of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Model	Correction	χ^2	df	P	GFI	AGFI	RMR	NFI	TLI	RMSEA
Measurement Model		394.736	113	.000	.914	.884	.049	.923	.932	.069
Correction Model	elimination: Result	283.693	98	.000	.936	.911	.042	.941	.951	.060
Comparison		▽	▽	-	△	△	▽	△	△	▽

GFI: Goodness of Fit Index, AGFI: Adjusted GFI, RMR: Root-Mean-square, NFI: Normed Fit Index, TLI: Tucker-Lewis Index, RMSEA: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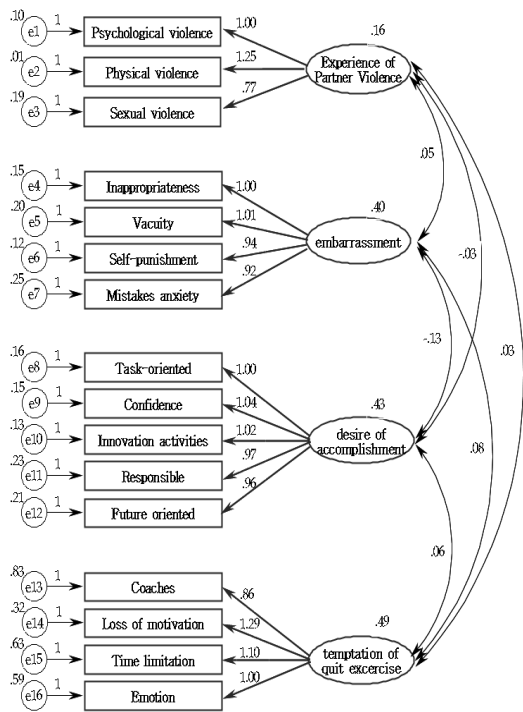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초기 측정 모형의 적합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확인적 요인분석의 경로계수의 표준오차(2.5 이상)와 오차분산이 매우 큰 내생변인인 운동중단유혹의 측정변인인 결과의 변인을 제거한 결과 적합도 지수가 크게 상승하였다. [Fig 2]는 이상의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된 외생변인 및 내생변인의 측정모형과 추정계수를 나타내고 있다.

2.3 조사절차 및 자료처리

연구자가 명확하게 한정되어 조사대상의 지역으로 선정된 곳을 연구자를 포함하여 과거 설문조사 경험이 있고 사전 교육을 받은 3명의 연구 보조원이 연구자와 함께 미리 견학된 조사 대상처를 대부분 직접 방문하여

설문지를 배포·수합하였다. 설문지에 자기평가기입법을 통하여 설문내용에 응답하도록 하며, 좀 더 성실한 응답 내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해당기관의 관련자들에게 연구의 취지를 설명한 후 양해를 구하여 협조를 받아 실시하였다.

수집된 표본 중 유효 표본으로 선정된 자료를 가지고 분석하였으며, 이 연구에서는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정한 연구문제를 아래와 같은 통계방법을 이용하여 수집한 자료를 분석하였다. 첫째, 댄스스포츠참가자의 개인적 특성에 따른 운동중단유혹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분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댄스스포츠참가자의 파트너폭력경험과 수치심, 성취욕구 및 운동중단유혹에 대한 인과적 관계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실시하였다.



[Fig. 2] Study variables measurement model and coefficients

3. 결과

3.1 개인적 특성에 따른 운동중단유혹

개인적 특성에 따른 운동중단유혹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Table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은 운동중단유혹의 의욕상실, 시간제약, 감정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여성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연령은 시간제약, 결과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제약은 50대, 40대, 30대, 60대 이상, 20대 순으로 나타났으며, 반면 결과는 20대, 30대, 60대 이상, 40대, 50대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교육수준에 따른 운동중단유혹의 차이는 지도자, 시간제약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지도자는 대학원이상, 전문대졸업, 대학교졸업, 고등졸업, 중졸이하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시간제약은 대학원이상, 대학교졸업, 고등졸업, 전문대졸업, 중졸이하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가정의 월수입에 따른 운동중단유혹의 차이에서는 시간제약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500만원 이상, 200-299만원, 300-399만원, 100-199만원, 400-499만원, 99만원 이하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참가유형에 따른 운동중단유혹의 차이는 지도자, 시간제약, 결과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Table 3> temptation of quit exercise according to personal characteristics

Factors	Coaches			Loss of motivation			Time limitation			Emotion			Result			
	M	SD	F	M	SD	F	M	SD	F	M	SD	F	M	SD	F	
Gender	Male	2.69	1.053	1.928	2.70	1.004	5.382*	2.84	1.046	4.623*	2.45	.946	5.444*	2.96	1.056	2.795
	Female	2.70	1.117		2.77	1.094		2.96	1.136		2.29	1.084		2.77	1.124	
Age	20s	2.61	1.046	.724	2.67	1.028	.487	2.67	1.091	2.530†	2.40	1.019	1.632	3.11	1.109	6.151***
	30s	2.73	1.016		2.87	.984		2.96	1.040		2.53	.957		3.10	.859	
	40s	2.71	1.139		2.71	1.153		3.02	1.133		2.19	.996		2.69	1.089	
	50s	2.80	1.119		2.76	1.016		3.06	1.126		2.31	1.091		2.55	1.100	
	60s or older	2.56	1.155		2.75	1.156		2.86	1.051		2.44	1.145		2.80	1.238	
Education level	under middle school	2.08	1.057	3.346*	2.48	1.124	2.007	2.43	1.159	5.208***	2.18	1.077	.936	2.70	1.212	.636
	High school	2.68	1.176		2.65	1.126		2.84	1.144		2.33	1.140		2.80	1.266	
	Vocational College	2.79	1.129		2.73	1.138		2.76	1.029		2.25	1.015		2.76	1.068	
	University	2.75	.979		2.82	.955		3.04	1.041		2.46	.951		2.89	.925	
Graduate school or older	2.85	1.015	3.04	.952	3.39	1.083	2.31	.952	3.01	1.017						
Monthly Income	under 99	2.45	1.056	.916	2.48	1.080	1.561	2.33	1.045	4.483***	2.29	1.040	1.178	3.11	1.246	1.862
	100-199	2.73	1.037		2.82	1.048		2.90	1.106		2.43	1.076		2.94	1.081	
	200-299	2.74	1.177		2.64	1.082		3.08	1.092		2.28	1.028		2.69	1.082	
	300-399	2.78	1.065		2.85	1.002		3.05	1.039		2.27	.934		2.73	1.097	
	400-499	2.72	1.083		2.92	1.162		2.85	1.042		2.59	1.099		2.77	1.043	
over 500	2.55	1.257	2.61	1.045	3.17	1.172	2.15	1.010	2.65	1.057						
Participation Type	Hobby	2.79	1.121	4.696*	2.79	1.077	1.430	3.03	1.064	9.769***	2.33	1.042	.407	2.71	1.073	7.815***
	Licensed	2.61	1.014		2.73	1.039		2.92	1.160		2.34	1.106		3.03	1.121	
	Player	2.42	.999		2.59	1.018		2.49	1.120		2.43	.985		3.16	1.122	

*p<.05, **p<.01, ***p<.001

지도자와 시간제약은 취미반, 지도자·자격증반, 선수반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반면 결과는 선수반, 지도자·자격증반, 취미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3.2 제안된 연구모형의 적합성

이 연구에서 설정된 구조모형의 적합도 검증을 위한 투입자료를 얻기 위하여 검증에 앞서 외생변인인 파트너폭력경험의 측정변인들과 내생잠재변인인 수치심, 성취욕구 및 운동중단유혹의 측정변인의 서로 간 상호 관련성을 알아보고 다중공선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Table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외생변인인 파트너폭력경험의 측정변인들과 내생잠재변인인 수치심, 성취욕구 및 운동중단유혹의 측정변인들 간에 상관계수가 .8이하로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음을 시사하고 있다. 즉, 모든 측정 변인들 간의 상관계수가 상호 독립적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 얻은 측정변인들 간의 확인적 요인분석과 상관관계 분석 결과를 토대로 파

트너폭력경험과 수치심, 성취욕구 및 운동중단유혹에 대한 가설적 구조모형을 검증한 결과 <Table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초기 연구모형의 적합도는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후 초기모형의 적합도를 좀 더 상승시키기 위해 공분산이 4이상 되는 지수 중 논리적으로 타당한 2개의 오차항의 경로(e16 ↔ e17, e7 ↔ e11)를 공분산 처리한 결과 <Table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적인 적합 지표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수정된 연구모형은 최종적으로 채택하기에 비교적 우수한 모형으로 판명되었다.

3.3 각 변인간의 인과관계

최종적으로 채택된 모형의 가설적 경로계수를 살펴본 결과 <Table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댄스스포츠참가자의 운동중단유혹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파트너폭력경험(.159), 성취욕구(.133), 수치심(.122)의 순서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댄스스포츠참가자의 파트너폭력경험과 수치심, 성취욕구 및 운동중단유혹의 인과관계에

<Table 4> Correlation between study variables

변인	x1	x2	x3	y1	y2	y3	y4	y5	y6	y7	y8	y9	y10	y11	y12	y13
Psychological violence	1															
Physical violence	.768**	1														
Sexual violence	.439***	.568***	1													
Inappropriateness	.181***	.146***	.082*	1												
Vacuity	.219***	.183***	.117**	.697***	1											
Self-punishment	.159***	.155***	.086*	.738***	.699***	1										
Mistakes anxiety	.139**	.105**	.039	.638***	.627***	.667***	1									
Task-oriented	-.128*	-.102*	.019	-.245*	-.211*	-.216*	-.149*	1								
Confidence	-.061	-.078*	-.006	-.275*	-.237*	-.245*	-.157*	.748***	1							
Innovative activities	-.043	-.063	.044	-.216*	-.198*	-.174*	-.145*	.751***	.784***	1						
Responsible	-.170*	-.158*	-.060	-.298*	-.285*	-.300*	-.136*	.672***	.683***	.680***	1					
Future oriented	-.082*	-.091*	.027	-.209*	-.149*	-.168*	-.091*	.688***	.681***	.714***	.707***	1				
Coaches	.097*	.098*	.144***	-.007	.023	-.058	-.101*	.202***	.174***	.232***	.160***	.134**	1			
Loss of motivation	.061	.058	.136**	.155***	.142*	.096*	.113**	.122**	.046	.092*	.094*	.057	.440***	1		
Time limitation	.003	-.010	.049	.039	.066	-.007	.006	.113**	.046	.103**	.090*	.029	.438***	.602***	1	
Emotion	.166***	.163***	.201***	.321***	.289***	.212***	.281***	.122**	.087*	.087*	.046	.144***	.345***	.530***	.337***	1

*p<.05, **p<.01, ***p<.001

<Table 5> Model fitness Index of hypothetical model

model	Correction	χ ²	df	P	GFI	AGFI	RMR	NFI	TLI	RMSEA
Initial model		283.693	98	.000	.936	.911	.042	.941	.951	.060
Correction Model	e16 ↔ e17 e7 ↔ e11	245.146	96	.000	.945	.922	.036	.949	.960	.055
Comparison		▽	▽	-	△	△	▽	△	△	▽

GFI: Goodness of Fit Index, AGFI: Adjusted GFI, RMR: Root-Mean-square, NFI: Normed Fit Index, TLI: Tucker-Lewis Index, RMSEA: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Table 6) The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and total effect of each predictor variable of hypothetical model

Hypothesis path	Path coefficient	S.E	Value	Result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total effect
Experience of Partner Violence → temptation of quit exercise	.143	.109	3.291**	Adopt	.143	.016	.159
Experience of Partner Violence → embarrassment	.180	.084	4.178***	Adopt	.180		.180
Experience of Partner Violence → desire of accomplishment	-.084	.067	-1.928	Reject	-	-.048	-.048
embarrassment → desire of accomplishment	-.269	.055	-6.355***	Adopt	-.268		-.268
embarrassment → temptation of quit exercise	.122	.056	2.812**	Adopt	.122		.122
desire of accomplishment → temptation of quit exercise	.133	.043	3.059**	Adopt	.133		.133

* $p < .05$, ** $p < .01$, *** $p < .001$

있어 수치심과 성취욕구의 요인은 파트너폭력경험과 운동중단유혹에 관계하는 의미 있는 매개변인이라는 사실로 판명된다.

4. 논의

댄스스포츠참가자를 대상으로 운동중단유혹에 대한 인과적 관계를 규명하여 댄스스포츠 현장의 지도자들에게 운동중단을 유발하는 유혹상황에 관련된 심층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데 이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 결과의 분석을 통해 선행연구와 비교하여 나타난 의미 있는 결과에 대해 논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댄스스포츠참가자의 개인적 특성에 따른 운동중단유혹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성, 연령, 교육수준, 수입, 참가유형은 운동중단유혹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성에 따른 운동중단유혹의 차이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의욕상실, 시간제약에 의한 운동중단유혹이 높으며, 반면 남성이 여성에 비해 감정에 의한 운동중단유혹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양분된 연구결과는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가사에 관련된 생활이 주된 이유로 운동참여의 기회부족과 시간제약으로 인해 운동을 중단하려는 가능성이 크며[4], 남성이 여성보다 파트너와의 불화, 시합에 대한 두려움, 연습에 대한 부담, 개인적 손실, 제도철폐에 대한 불만 등의 스트레스가 높다는 연구결과[28]와 유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연령에 따른 운동중단유혹의 차이는 연령이 많은 집단이 연령이 적은 집단에 비해 시간제약에 의한 운동중단유혹이 높고, 연령이 적은 집단이 연령이 많은 집단에 비해 결과에 의한 운동중단유혹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사춘기까지는 연령이 증가

할수록 체육활동에 소요되는 시간이 증대하다가 20세 이후에 큰 폭의 감소현상이 나타나고, 50세까지 점진적인 감소추세를 보인다는 설명[6]을 기초로 할 때, 연령이 증가할수록 직업 및 가사 등과 같은 가족을 부양할 책임이 증가됨으로써 상대적으로 운동의 지속적 참여가 어려워지게 되는 반면, 저연령이 고연령에 비해 운동결과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을 뿐만 아니라 만족스럽지 못한 운동결과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운동의 포기여의지가 많다는 사실을 조심스럽게 추측할 수 있다. 교육수준에 따른 운동중단유혹의 차이는 교육수준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지도자와 시간제약에 의한 운동중단유혹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교육으로는 운동지속성을 예측하기보다는 다만 교육수준이 다른 요인들과 병행될 때 운동지속성에 대한 예측이 증가된다[20]는 설명에 기초로 할 때, 교육수준이 높은 참가자는 지도자의 지도능력, 무성의, 무신경 등과 같은 지도자에 의한 불만에 의한 요인으로 운동을 중단하려는 유혹에 빠지거나 업무 및 학업, 시간부족, 과중한 업무 등과 같은 시간제약으로 인한 요인으로 운동을 중단하고자하는 유혹이 높아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반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스포츠참가의 빈도가 지속적이며, 스포츠에 대한 참가율이 높다는 선행연구[57]와 상반된 결과를 볼 때 추후 후속 연구를 통해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된다. 가정의 월수입에 따른 운동중단유혹의 차이는 가정의 월수입이 낮은 집단에 비해 월수입이 높은 집단이 시간제약에 의한 운동중단유혹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가정의 월수입이 운동중단유혹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연구결과[52]와 소득이 스포츠 참가를 예측하는데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54]를 통해 입증되고 있다. 따라서 경제생활 정도와 직결되는 가정의 수입은 운동중단유혹을 유발하는데 매우

중요한 변수임을 알 수 있다. 참가유형에 따른 운동중단 유혹의 차이는 지도자와 시간제약은 취미반, 지도자·자격증반, 선수반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반면 결과는 선수반, 지도자·자격증반, 취미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대체적으로 취미반일수록 지도자와 시간제약에 의한 운동중단유혹이 많고, 선수반일수록 운동결과에 의한 운동중단유혹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취미반이나 동호회와 같이 여가의 수단으로 참가하는 집단은 신뢰성 형성이나 몰입, 결속력이 낮게 나타난다는 연구결과[24]와 댄스스포츠 선수들의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에서 아마선수보다 프로선수가 실패의 두려움, 처벌의 두려움, 신체적 한계, 시합의 부담 등과 같은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보고[28]도 이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이와 같이 댄스스포츠 참가유형에 따라 운동중단유혹의 관계는 어떤 형태로 참가하느냐에 따라 운동중단유혹 또한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취미나 여가활동을 위한 목적으로 참여하는 참가자들은 시간제약, 지도자 등과 같은 일상생활 및 대인관계의 문제로 인해 중단유혹이 높은 반면, 선수반과 같은 전문적인 성향을 띤 참가자들은 경기력 향상 및 시합결과 등 운동결과의 만족여부가 운동을 지속하게 하거나 중단하게 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와 선행연구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개인적 특성에서의 직업을 제외한 성, 연령, 교육수준, 가정의 월 수입, 참가유형 요인은 댄스스포츠참가자의 운동중단유혹에 관련하여 어떠한 형태로든 운동참여에 중요한 요인이 되는 동시에, 운동을 중단하게 되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댄스스포츠 지도자와 관리자는 참가자들의 지속적인 참여 및 댄스스포츠 활성화 방안을 위해 우선적으로 참가자의 특성을 고려한 세심한 배려와 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둘째, 파트너폭력경험과 수치심, 성취욕구 및 운동중단유혹의 구조모형의 검증을 통하여 구조모형 내의 경로 중 하나인 파트너폭력경험과 운동중단유혹의 인과관계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이 결과 파트너폭력경험과 운동중단유혹 간에는 유의한 인과관계(임계율 3.29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트너폭력경험과 운동중단유혹 간의 임계율이 1.96이상의 관계를 보여 경로가 채택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파트너폭력경험이 높을수록 운동중단유혹도 높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결과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선행 연구로는 생활체육현장에서 발생하는 언어적 공격성이나 적대감은 운동중도탈락 의도에 큰 영향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49]와 운동선수의 78%가 구타 경험이 있으며 이로 인해 운동이 싫어지나, 인격적 모욕감으로 운동을 중지하고 싶다는 부정적인 감정의 변화가 나타난다는 연구결과[53], 그리고 운동선수의 성폭력 경험, 즉 성희롱, 음란물, 강간 등과 같은 경험은 중도탈락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9]가 이 연구 결과를 재확인하여 주었다. 반면 공격성이 운동중도탈락 의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48]도 있는데, 그러나 분명한 것은 폭력은 피해자에게 있어서는 부적절한 공격행동 양상을 나타내고, 이러한 공격성은 심리적 불편감과 사회부적응과 연관되어 있다[34, 48]는 점을 상기할 때 파트너폭력경험은 운동중단유혹에 아주 영향력이 있는 요인이라 판단된다.

파트너폭력경험과 수치심의 인과관계에 대한 결과는 유의한 인과관계(임계율 4.178)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수치심은 폭력 및 학대 경험에 의해 생겨날 수 있다는 연구[38]를 통해 입증되었다. 특히 정서적 학대는 명백하게 부당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지각의 정도가 클수록 자신을 부족하고 결핍되었고 부적절하다고 느끼게 되며, 그로인해 수치감은 증가하게 된다는 보고[41]와 수치심은 폭력사건과 우울,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 자존감 등의 심리적 고통의 수준을 매개하며, 수치심을 더 많이 느끼는 사람일수록 자존감을 더 낮고 우울감과 스트레스 장애(PTSD)증상이 더 높다는 보고[2]는 이 연구결과를 지지해 주고 있다.

파트너폭력경험과 성취욕구의 인과관계에 대한 결과, 파트너폭력경험과 성취욕구 간에는 인과관계(임계율 -1.928)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연구의 결과에서 나타난 것처럼 수치심에 의해 간접적인 영향을 보였다. 비록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보이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폭력 및 체벌이 회피학습을 유발하며 정서적 부작용을 수반함은 물론, 학습자를 낮은 수준의 도덕성에 머물게 하는 등의 부정적 효과가 한층 크다는 연구결과[46]와 청소년 운동선수들의 폭력경험은 동기상실 측면에서 회피반응을 유발하게 된다는 연구결과[53]를 볼 때, 비록 구조방정식모형을 이용한 구조모형의 검증에서는 구조모형 내에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해 경로로 채택되지는 않았어도 서로 간의 영향력이 있을 것이

라는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다고 사료된다. 즉 파트너폭력경험이 개인의 수치심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수치심은 과업지향, 자신감, 혁신활동, 책임감, 그리고 미래지향 등과 같은 성취욕구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모형 내 경로의 가능성은 상존한다고 판단된다.

수치심과 성취욕구의 인과관계에 대하여 알아본 결과, 수치심과 성취욕구 간에는 유의한 인과관계(임계율 -6.355)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임계율이 절대값 1.96이상의 관계를 보여 경로가 채택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수치심이 높으면 성취욕구가 낮아짐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수치심은 자신에 대한 부정적 평가뿐만 아니라 더 이상 수치심을 경험하지 않기 위해 회피 반응을 유발하며 대인간 접촉을 제한하게 된다는 연구결과[19]와 수치심경향성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 상황에서 회피 혹은 중단하는 경향과 동시에 이면에는 인정에 대한 욕구도 잠재되어 있다는 연구결과[16], 수치심경향성은 성취동기와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다는 연구결과[45]는 이 연구의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전체 자기(entire self)가 문제시 되는 경험인 수치심은 무슨 일을 하든 탁월한 표준에 도달하려는 성향인 성취욕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임을 시사한다.

수치심과 운동중단유혹의 인과관계에 대하여 알아본 결과, 수치심과 운동중단유혹 간에 유의한 인과관계(임계율 2.812)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수치심 경향성은 숙달집근 목표지향성을 제외한 숙달 회피, 수행집근, 수행회피 목표지향성 모두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는 연구결과[22]와 수치심은 전형적으로 쓸모없고 힘을 상실했다는 지각에 의해 매우 위축되고, 도망치거나 숨고 싶어 하게 만든다는 연구결과[26]는 이 연구의 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들을 비추어 보면 수치심은 성취과제수행을 회피하거나, 경험적 회피 강화 및 부인, 대인간 접촉제한 및 방어 등과 같은 행동을 하게 하여, 결국 관계적 측면에도 영향을 줄뿐 아니라 그 상황에서의 회피 혹은 중단하려는 경향이 많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생활체육 활동 내에서도 이상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자의 의식인 수치심은 운동중단유혹에 아주 영향력이 있는 매개체임을 판단할 수 있다. 즉 수치심의 정도가 클수록 운동중단유혹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변수임을 시사한다.

성취욕구와 운동중단유혹의 인과관계에 대한 결과는 유의한 인과관계(임계율 3.059)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운동중단을 관찰한 연구들[14, 25, 30]의 결과와는 배치되는 반면, 생활체육참가자의 운동욕구와 포기의도에 대한 연구에서 운동욕구 요인 중 과시욕구가 운동 포기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31]와 유사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운동참가를 통해 자신의 운동능력 및 기능의 우월성을 자랑하기 위한 욕구로 볼 수 있는 과시욕구가 오히려 포기의도를 가중시킨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현상의 원인에 대해 다음의 두 가지 추론이 가능하다. 그 첫 번째로는 이 연구에서 사용한 운동중단유혹의 설문 문항이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운동생활로부터 탈퇴할 의도를 묻는 문항이 아닌 운동참가자들의 운동중단을 하도록 하는 요인, 즉 지도자, 의욕상실, 시간제약, 감정 등의 불만족 및 제약에 의한 중단유혹상황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두 번째 추론은 성취욕구가 높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 비해 좀 더 성취 지향적이고 고도의 몰입과 완벽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자기의 중요성을 인식해 주었으면 하는 존경추구욕구 또는 그 모든 것을 다 충족하고자하는 자아 실현욕구가 훨씬 강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이 추론은 인간은 생리적, 안전적, 사회 소속감의 욕구가 충족되면 단순히 집단 구성원의 일원이라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의 중요성을 인식해 주거나 실질적인 존경을 받고자하는 존경추구의 욕구를 추구하게 되며, 더 나아가 그가 하고 싶은 것을 다 충족하고자 하는 욕망, 즉 자아실현에 대한 욕구를 추구한다는 욕구계층이론[1]을 통해 지지 될 수 있다. 즉, 자신의 성취에 대한 확신이나 기대수준이 높은 참가자일수록 타인의 인정, 보상, 또는 만족감을 얻으려는 고도의 기대감과 모든 상황에서 완벽을 추구하려는 성향이 높은데, 이러한 성취욕구성향이 높은 참가자가 운동 지도자의 무관심에 대한 불만감과 직장, 가정의 업무 등으로 인해 시간제약이 많아지고, 그로 인한 운동에 대한 의욕상실 및 내적 감정이 높아지게 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귀결인지도 모른다. 이러한 가능성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관련된 선행 연구[3, 50]에서 운동을 포기하는 유형으로 성공가능성의 회박, 학업 지속, 불안, 부정적 교우관계, 학업 퇴보, 흥미 상실 등을 제시하였으며, 운동욕구 또는 심

리욕구 만족이 운동포기의도 및 지속의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즉 성취욕구의 특성으로 볼 수 있는 운동욕구 및 심리욕구 만족, 성취에 대한 기대감은 운동의 지속행동에 변화를 주는 원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상업스포츠 시설 참가자의 중도탈락에 대한 연구에서 개인적 운동 환경요인과 운동환경 만족, 즉 운동 내용, 지도방법 등의 불만족 요인은 중도탈락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운동프로그램 만족, 즉 운동을 통한 기능 발달의 만족도, 동료강사와의 친밀도 등의 만족 요인은 중도탈락에 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47]를 기초로 할 때 전술한 가정은 충분한 개연성을 갖는다고 사료된다. 그러나 운동 참가자의 성취욕구가 운동중단유혹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의 결과에 대해서 직접적인 지지를 해주는 연구는 사실 부족한 실정이므로 앞으로 꾸준한 후속연구가 진행되어 이러한 결과와 추론이 심도 있게 관찰될 필요가 있다.

이상을 종합하여 여러 선행연구의 결과와 이 연구의 결과를 비추어 볼 때 댄스스포츠참가자의 파트너폭력경험이나 수치심 및 성취욕구는 운동중단유혹을 증가 혹은 감소시킨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즉 파트너폭력경험, 수치심, 성취욕구의 정도가 많거나 적을수록 운동중단유혹을 유발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변인 간의 관계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댄스스포츠 현장에서의 지도자들은 참가자들이 운동지속유지 및 상상을 위해 파트너 간의 불화 및 폭력 등과 같은 문제점은 없는지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하며, 운동수행에 대한 성취감을 유도할 수 있도록 참가자 개인의 일상생활 여건을 고려한 적정 수준의 운동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5. 결론

이 연구는 댄스스포츠참가자의 운동중단유혹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가설적 인과모형을 통해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댄스스포츠참가자 523명을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개인적 특성 중 성, 연령, 교육수준, 가정의 월수입, 참가유형에 따라 운동중단유혹은 차이가 있다. 여성이 남성에 비해 운동중단유혹의 수준이 높다. 연령이 많

을수록 시간제약에 의한 운동중단유혹이 높고, 연령이 적을수록 결과에 의한 운동중단유혹의 수준이 높다. 평균적으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지도자, 시간제약에 의한 운동중단유혹이 높다. 가정의 월수입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시간제약에 의한 운동중단유혹이 높다. 선수반에 비해 취미반이 지도자, 시간제약, 결과에 의한 운동중단유혹이 높다.

둘째, 댄스스포츠참가자의 운동중단유혹을 설명하기 위해 제안된 초기의 구조모형은 분석결과, 운동중단유혹의 측정변인인 결과의 측정 요인으로 인해 적합하지 않았다. 초기의 제안된 구조모형에서 적합하지 않은 측정요인들을 제거하고 초기모형을 수정한 모형은 적합하였다.

셋째, 댄스스포츠참가자의 운동중단유혹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파트너폭력경험과 수치심, 성취욕구로 나타났다. 즉, 운동중단유혹을 설명하기 위한 구조방정식모형은 독립적인 요인으로 파트너폭력경험, 매개적인 요인으로서 수치심과 성취욕구로 구성되는 간명모형이라고 조심스럽게 제안할 수 있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생활체육 현장의 지도자와 관계자들은 댄스스포츠참가자의 운동중단유혹을 낮추기 위해서는 파트너 간에 유발될 수 있는 폭력에 대한 세심한 주위와 댄스스포츠 활동 중에 수반될 수 있는 수치심에 대한 예방·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긍정적인 성취욕구를 향상시키기 위한 지도자 및 관리자 등의 적극적이고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

REFERENCES

- [1] A. H. Maslow, *Motivation and personality*. New York, Haper & Bros, 1954.
- [2] C. Feining, S. Rosenchal, & L. Taska, Stigmatization and the development of friendship and romantic relationships in adolescent victims of sexual abuse. *Child Maltreatment*, Vol.5, pp.311-323, 2000.
- [3] C. H. Seong, Dropout Motives and it's Related Variables in Competitive Sports among Korean Youth Athletes. *Korean Journal of Sport Psychology*, Vol.13, No.2, pp.39-57, 2002.

- [4] D. G. Park, A Case Study on the Point of View on Physical Education and its Real Teaching of Elementary School Teachers. A master's thesis, Gyeongbuk University, Gyeong Buk, 1999.
- [5] D. Grimley, J. O. Prochaska, W. F. Velicer, W. F. Blais, & C. C. DiClemente, The transtheoretical model of change. In T. M. Brinthaupt & R. P. Lipka(Eds), Changing the sell: Phillosophies, techniques and experiences, pp.201-227.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1994.
- [6] D. H. Smith, & N. Theberge, Why people recreate: An overview of research. Champaign, IL: Life Enhancement Publications, 1987.
- [7] D. R. Cook, Measuring shame: The internalized shame scale. *Alcoholism Treatment Quarterly*, 4, 197-215. 1987.
- [8] E. A. Fallon, H. A. Hausenblas, & C. R. Nigg, The transtheoretical model and exercise adherence: examining construct associations in later stages of change. *Psychology of sport and exercise*, Vol.6, No.6, pp.629-640, 2005.
- [9] E. H. Cho, Analysis of Hypothetical Causal Model on the Relationship Experience of Sexual Violence and Dropout Intention of High School Athletes. A master's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Dankook University, Cheonan, 2008.
- [10] E. Kinard, Perceived and actual academic competence in maltreated children. *Child Abuse & Neglect*, Vol.25, pp.33-45, 2001.
- [11] G. Kaufman, The Phycholog of shame: Theory and treatment of shame-based syndromes. New York: Springer, 1989.
- [12] H. A. Hausenblas, C. R. Nigg, E. A. Dannecker, D. S. Downs, R. E. Gardner, & E. A. Fallon, A missing piece of the transtheoretical model applied to exercis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temptation to not exercise scale. *Psychology & health*, Vol.16, No.4, pp.381-390, 2001.
- [13] H. B. Sim, Comparison of the burnout use Violence of Individual-sports Athletes and team- sports Athletes. *The Kore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Vol.44, No.4, pp.261-270, 2005.
- [14] H. J. Seo, & Y. J. Kim, The Relationships among Sport Participation, Athlete Satisfaction, and Intention to Sport Continuance and Withdrawal of Adolescent Athletes. *The Kore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Vol.44, No.2, pp.97-107, 2004.
- [15] H. M. Lim, & J. Y. Huh, Relationship between Stage of Change Behavioral Regulation and Temptation of Quit Exercise in Participants of Life Time Sports. *Journal of Sport and Leisure Studies*, Vol.42, pp.1465-1480, 2010.
- [16] H. R. Han, The effect of narcissism on social anxiety: mediated by shame-proneness. A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2004.
- [17] H. S. Shin, & G. J. Lee, A Cognition and Experience of Sexual Violence of the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Vol.15, No.1, pp.69-79, 2003.
- [18] I. S. Lee, & H. R. Choi, Assessment of Shame and Its Relationship With Maternal Attachment, Hypersensitive Narcissism and Loneliness.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Vol.17, No.3, pp.651-670, 2005.
- [19] J. A. Abe, Shame, guilt, and personality judgment.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Vol. 38, pp.85-104, 2004.
- [20] J. B. Gale, W. T. Eckhoff, S. F. Mogel, & J. E. Rodnick, Factors related to adherence to an exercise program for healthy adults. *Medicine and Science in Sports and Exercise*, Vol.16, No.6, pp.544-549, 1984.
- [21] J. E. Martin, & P. M. Dubbert, Adherence to exercise. In R. L. Terjung(Ed.). *Exercise and sport Sciences Review.*, Vol.13, pp.137-167, 1985.
- [22] J. E. Shin, Psychological Differences between Shame-proneness and Guilt-proneness in Adolescents: Relations to Motivation and Responses to Interpersonal and Academic Success Experiences. A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2011.
- [23] J. H. Hong, & H. Y. Lee, Developement of the Scale Temptation to not Exercise in Korea. *Korean*

- Journal of Sport Psychology, Vol.18, No.4, pp.135-148, 2007.
- [24] J. H. Moon, & I. H. Kim, The Difference of Partner Reliance, Team Commitment, and Unity in the Individual and Environment Variables of Dance Sport Expert. Journal of Sport and Leisure Studies, Vol.27, pp.439-450, 2006.
- [25] J. M. An, The relationship of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on exercise drop out of aerobic gymnastic athletes. Korean Journal of Sport Psychology, Vol.18, No.1, pp.75-90, 2007.
- [26] J. P. Tangney, & R. L. Dearing, Shame and Guilt. New York: Guilford Publications, Inc, 2002.
- [27] J. S. Shin, & D. I. Kim, Development of achievement motivation. Seoul: Changhaiaksa, 1985.
- [28] J. Y. Park, Enjoyment and Stress Sources Experienced by Dance Sports Elites. Korea Sports Research, Vol.15, No.6, pp.323-342, 2004.
- [29] J. Y. Son, A Study about the Property of the Revised Conflict Tactics Scales(CTS2) on Korean Couples: Focused on Husband's Conflict Tactics and Wife Abuse Behaviors. Journal of Family Relations, Vol.2, No.1, pp.51-87, 1997.
- [30] J. Yoo, & J. H. Heo, The Effects of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and Motivational Climate on Intrinsic Motivation and Performance in Physical Education (PE) Settings. Korean Journal of Sport Psychology, Vol.12, No.1, pp. 109-123, 2001.
- [31] K. H. Kim, & Y. H. So, Influences of Exercise Needs on Exercise Adherence Questionnaire and Intention to Dropout of Leisure Sports Participants. Korean Journal of Sport Psychology, Vol.21, No.2, pp.33-45, 2010.
- [32] K. J. Kim,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level of achievement motivation of teachers and their role behavior. A master's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Kongju University, Chungnam, 1987.
- [33] K. U. Uu, & Y. B. W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Origin of Variance Occurred through Participation in All of Sports and School Violence/Adaptation. Korean Journal of Sport Psychology, Vol.19, No.1, pp.97-113, 2008.
- [34] L. Berkowitz, Aggression: Its cause, consequences, and control. New York: McGraw- Hill, Inc, 1993.
- [35] M. A. Straus, Hamby, S. L., Boney-McCoy. S., & Sugarman, D. D. (). The revised conflict tactics scales(CTSII). Journal of Family Issues, Vol.17, No.3, pp.283-316, 1996.
- [36] M. H. Kong, The Experience of Sexual Harassment at Work and Its Factors. Journal of Korean Women's Studies, Vol.11, pp.110-137, 1995.
- [37] M. J. Kim, & E. Y. Cheon, Research on Partner Violence among Dance Sports Participants. Korean Journal of Sport Science, Vol.21, No.3, pp.1441-1451, 2010.
- [38] M. Wells, & R. A. Jones, Childhood parentification and shame-proneness: A preliminary study,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Vol.28, No.1, pp.19-27, 2000.
- [39]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12 Sport White Paper. Seoul: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12.
- [40] N. Lutwak, & J. R. Ferrari, Moral affect and cognitive process: Differentiating shame from guilt among men and women.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Vol.21, pp.891-896, 1996.
- [41] P. Loader, Such a shame A consideration of shame and shaming mechanism in families. Child Abuse Review, Vol.7, pp.44-57, 1998.
- [42] R. K. Dishman, & j. Buckworth, Increasing physical activity: A quantitative synthesis. Medicine and Science in Sport and Exercise, Vol.28, pp.706-719, 1996.
- [43] R. K. Dishman, Motivation and exercise adherence. In J. M. Silva & R. S. Weinberg(Eds). Psychological foundation of sport. Champaign, IL: Human Kinetics Publishers, 1984.
- [44] S. H. Park, & S. Y. Oh, The influence of yoga participations' degree of participation and Leisure satisfaction on temptation of quit exercise. The Kore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Vol.47, No.6, pp.527-535, 2008.

- [45] S. M. Song, Comparison between Shame-Proneness and Guilt-Proneness: Differences by Psychological Traits and Situational Variables. Ph. D. dissertation, Hanyang University, Seoul, 2007.
- [46] S. W. Kang, A Study on the Actual Condition of Inter Senior-Junior Corporal Punishment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Experience to Corporal Punishment and Adjustment to College in Physical Education Majors. The Kore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Vol.43, No.5, pp.79-90, 2004.
- [47] S. W. Kang, A Study on the Dropout of the Commercial Sport Program Participants. The Kore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Vol.39, No.4, pp.81-91, 2000.
- [48] S. W. Kang, Analysis of hypothetical causal model on the relationship verbal violence experience and self training participation of junior and high school athletes. The Kore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Vol.46, No.6, pp.97-108, 2007.
- [49] S. W. Kang, The Influence of Verbal Violence on Leisure Sports Participants' Self-Esteem, Violence and Dropout Intention. The Kore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Vol.44, No.6, pp.169-182, 2005.
- [50] S. W. Lim, & J. L. L, Dropout among high school athletes, problems and countermeasure in adaptation of school days. Korean Journal of Society of Sport, Vol.15, No.2, pp.231-246, 2002.
- [51] S. Y. Kim, A Study Attitude and Experience of Violence in Conjugal Violence of the Elderly Couples. Journal of the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Vol.21, No.3, pp.129-144, 2002.
- [52] S. Y. Seok, a study on social work intervention for school life readjustment of dropouts. A master's thesis, Pusan University, Pusan, 2000.
- [53] Seoul National University Institute of Sport Science, Players of Violence Survey Sheet. Seoul: Korean Olympic Committee, 2005.
- [54] W. J. Jung, Y. B. Kim, & S. I. Lee, Analysis of Consumer Behavior of Participants of Sports Center according to Socio-demographic Variables. Journal of Sport and Leisure Studies, Vol.16, pp.983-1001, 2001.
- [55] W. Y. Song, The Psychological Reaction of Adolescent Athletes to Violence and Bullying. Korean Journal of Sport Psychology, Vol.14, No.1, pp.109-125, 2003.
- [56] Y. H. Park, Psychology of Achievement. Seoul: Baeyeongsa, 1993.
- [57] Y. L. Chung, The Relationship between Sports for All Participation and Life Satisfaction. Ph.D. dissertation, Seoul University, Seoul, 1997. [36]
- [59] Y. S. Suh, & O. I. Park, The Effects of the Family Violence on the Adolescents' Self-esteem and Academic Achievement.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Vol.7, No.2, pp.51-73, 2002.

김 명 자(Kim, Myung Ja)



- 1988년 2월 : 충남대 체육교육학과 (학사)
- 1991년 8월 : 충남대 체육교육학과 (석사)
- 2012년 8월 : 단국대 대학원(체육학 박사)
- 1991년 8월 ~ 현재 : 충남대 강사

· 관심분야 : 스포츠사회학
 · E-Mail : dance3235@hanmail.net

천 은 영(Chen, Eun Young)



- 1993년 2월 : 서원대 무용학과(학사)
- 2002년 2월 : 단국대 체육교육학과 (석사)
- 2012년 8월 : 단국대 대학원(체육학 박사)
- 2006년 3월 ~ 현재 : 단국대 강사

· 관심분야 : 스포츠사회학
 · E-Mail : chum95@dankook.ac.kr